

3. 광주 7부 학생회 모임 3회

그룹바이블 스터디(GBS) / 임야곱

주제/"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및

학생수양회 일정과 준비 사항에 대한 브리핑.

참석자/ 임야곱, 강여호수아, 송한선, 조은혜, 임별이, 김세진, 김경동, 홍다혜, 김신영.

날짜/ 2016. 1. 28. 목. 7:00(PM)

장소/광주 7부 홀.

당신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믿음에 대하여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롬 1:11).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과 그것을 누리는 믿음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한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해 쓴 편지이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아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결론을 분명하게 짚고 시작한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싶은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선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롬 16:26,27).

로마서 16장의 결론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성도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즉, 믿음 자체가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올바르게 정확한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믿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믿음 역시 정확하지 못할 뿐더러 그의 믿음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3,14).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다. 들어야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든 그 대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들어야 한다. 듣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행위로 그치지 않는다. 반드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알게 되고, 아는 것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운다.

그런데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아무것이나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한다.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듣는다는 것은 단지 듣는 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 들려주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 주체는 말씀이다.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분이 말씀이시라면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니고 내가 보고 지금 나에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펴들고 죽은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리이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행위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깊이 파헤쳐서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와 간절함이 들려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게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 믿음은 분투다, 김선교

†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요한복음 1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 베드로전서 1장 25절

† 기도

주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 적용과 결단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해보세요.

<http://theme.godpeople.com/theme/24958>